

오징어게임, 일본이 뽑은 '올해의 유행어'

작년 '사랑의 불시착' 이어 두 번째 일본 넷플릭스서도 TV쇼 부문 1위 현지매체 "양극화 소재 세계가 공감" "단순한 게임으로 신선한 연출" 호평

'오징어게임'을 바라보는 일본의 시선이 달라졌다. 애니메이션과 영화 등 '콘텐츠 강국'으로 인정받은 자부심으로 '오징어게임'의 세계적 신드롬을 애써 외면하는 듯한 시각을 드러내온 것과 달리 차분히 인기 요인을 들여다 보고 있다.

시선은 '오징어게임'이 자국에서도 뜨거운 인기를 모으고 있다는 데로 향한다. 최근 출판사 자유국민사가 '2021 유켄 신어·유행어' 대상 30개 후보를 선정한 가운데 '오징어게임'도 뽑혔다. '유켄 신어·유행어'는 자유국민사가 1984년부터 매년 일본사회의 다양한 모습을 상징하는 단어 10개를 뽑아 12월 초 시상한다. 많은 언론이 관심 속에 이를 보도하기도 한다.



이정재·정호연·박혜수(왼쪽부터)가 9일(한국시간) 미국 LA 할리우드 뉴이 하우스에서 '오징어게임' 프로모션 행사를 열고 레드카펫 위에서 활짝 웃고 있다. LA(미국) | AP·뉴스스

●일본 '올해의 새로운 유행어'

'오징어게임'은 지난해 '사랑의 불시착'이 큰 인기로 수상한 데 이어 한국 콘텐츠로서 다시 이름을 올려 현지의 관심을 입증한다. 실제로 9일 OTT(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콘텐츠 랭킹 사이트인 플릭스패드를 보면 8일 현

재까지 일본 '넷플릭스 가장 많이 본 TV쇼(프로그램)' 1위에 올라 있다. 9월 23일 이후 전 세계 1위였다 46일 만인 9일 미국의 '아케인'에 자리를 내줬지만, 일본에서는 여전히 큰 인기를 누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소식을 전한 닛칸스포츠는 '사랑의 불시착'에 이어 '오징어게임'이 "한국 국내시장을 넘어 세계시장을 겨냥했다"면서 "불평등한 세상에 대한 분노를 반영한 보편성으로 시청자 마음을 사로잡았다"고 평가했다. 이어 한국 콘텐츠의 인기도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 내다봤다.

이런 시각에 앞서 일부 매체는 '오징어게임'의 전 세계적 인기를 폄하하는 듯한 태도를 드러냈다. 경제매체 현대비즈니스에서 한 칼럼니스트는 '데스 게임'을 다룬 일본 작품이 많아 "신선함을 느끼지 못하고 깊어도 없다"고 밝혔다. 또 JB프레스도 '오징어게임'이 "일본의 만화나 영화와 유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썼다. yuseu.com 기자 tadada@donga.com

●"빈부 양극화 이야기에 전 세계 공감"

이는 또 다른 현지 매체의 평가로도 이어진다.

국제뉴스 중심의 프랑스 매체 쿠리에의 일본판은 '오징어게임'은 "양극화의 격차사회를 직접적으로 반영해 전 세계 많은 사람의 공감을 얻었다"고 썼다. 영화 '기생충', 그룹 방탄소년단 등과 함께 한국 콘텐츠에 대한 해외의 높은 신뢰도 쌓았다고 덧붙였다. 여성 자신은 "타인을 희생시켜 돈을 벌며 행복할 수 있는냐는 물음"이라면서 "현대사회의 부와 경제우월주의에 대한 경고"라고 봤다.

'오징어게임'이 목숨을 내걸고 극한의 경쟁에 참여하는 이들의 이야기를 뜻하는 '데스 게임'을 극화한 것으로, 일본이 '원조'였다는 점을 상기는 보도도 이어진다. 2000년 영화 '배틀로얄' 이후 다양한 관련 작품이 "복잡한 규칙과 비현실 설정"을 드러냈지만 '오징어게임'은 단순한 게임을 활용한 신선한 이야기라는 평가다.

이런 시각에 앞서 일부 매체는 '오징어게임'의 전 세계적 인기를 폄하하는 듯한 태도를 드러냈다. 경제매체 현대비즈니스에서 한 칼럼니스트는 '데스 게임'을 다룬 일본 작품이 많아 "신선함을 느끼지 못하고 깊어도 없다"고 밝혔다. 또 JB프레스도 '오징어게임'이 "일본의 만화나 영화와 유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썼다. yuseu.com 기자 tadada@donga.com

안방의 한석규 '시즌제 아이콘'

JTBC '아침이...' 촬영 막바지
내년 2월 방영 후엔 시즌2 논의
SBS '낭만닥터...' 시즌3도 예정



한석규

한석규가 안방극장의 '시즌제 배우'로 거듭날 전망이다. 새 주연드라마 JTBC '아침이 밝아올 때까지'와 SBS '낭만닥터 김사부' 등 시즌 드라마를 잇따라 내놓는다.

그는 3월부터 '아침이 밝아올 때까지'를 촬영해왔다. 사전제작을 목표로 이달 중 촬영을 마무리하고, 내년 2월 8부작으로 방영기로 했다. 제작진은 예상보다 길이가 압축돼 8회 안에 미처 담지 못한 내용을 시즌2로 내놓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드라마는 법의학자 한석규가 테러 용의자로 지목되고, 프로파일러 정유미가 해당 사건을 파헤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다. 이희준, 엄혜란, 류혜영, 김준한 등이 이들과 함께 출연한다.

이후 '낭만닥터 김사부' 시즌3도 내놓는다. 2016년과 지난해 시즌1·2를 방송한 드라마는 지방의 한 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 이야기다.

두 시즌 모두 방영 중 27%대(닐슨코리아) 시청률을 돌파하는 등 큰 인기를 모았다. 한석규도 드라마에 대한 애정이 깊어 올해 초부터 시즌제에 대한 의지를 밝혀왔다. 한석규를 비롯해 연출자 유인식 PD, 극본을 집필한 강은경 작가 등 제작진은 내년 상반기에 시즌3을 촬영기로 했다. yuseu.com 기자 yjh0304@donga.com

결국 법정가는 연예인 논란들

이지훈, 갑질 논란 "법적 대응" 폭행 논란 이규한도 혐의 부인 이영범 악성 댓글에 "법적조치"

일부 연예인들이 연일 제기되는 갖은 의혹과 논란에 "법적 대응"이라는 최후 수단을 빼들었다. 자신을 향한 부정적 시선을 씻어내려는 고육책으로 보인다.

배우 이지훈은 최근 '갑질 논란'에 휘말려 있다. IHQ 드라마 '스폰서'의 주연으로 출연 분량에 대한 불만 때문에 연출자 등 주요 스태프가 교체됐으며, 촬영장에서도 지인과 함께 스태프와 마찰을 빚었다는 것이다.

이지훈은 이를 부인한다. 그는 SNS를 통해 거의 매일 해명에 나서고 있다. 9일에도 "갑질을 한 적도, 할 이유도 없다"면서 출연 분량 조정과 관련한 과정을 공개하며 초기 작가와 연출자를 비난하기도 했다. 제작진도 작가와 연출자는 내용 수정과 영상 결과물 등 문제로 교체했다며 이지훈의 주장에 힘을 보탤다.

최근 두 편의 신작 드라마 출연을 포기하고 SNS 게시물도 삭제해 연예계 우려를 샀던 이규한은 지난해 8월 서울 강남에서 한 남성을 시비 끝에 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오다 2일 검찰에 송치됐다. 이규한은 9일 스포츠동아와 전화통화에서



이지훈

이규한

이영범

"절대 폭행한 일이 없다"면서 "검찰 조사에서 아무런 혐의 없음"을 밝힐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배우 이영범은 최근 전 부인 노유정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 자신의 "과거 외도" 주장을 내놓자 침묵 끝에 "사실이 아니다"면서 "유튜브 등에 떠도는 허무맹랑한 말에 분노하며 더 이상 인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영범은 관련 내용의 삭제와 악성 댓글 등에 대한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이

지훈도 "없는 일에 대해 말씀하시는 분과 무분별한 악의적 댓글, 법적으로 선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규한의 경우 향후 검찰 조사를 통해 시비비비를 가릴 수밖에 없게 됐다.

이처럼 최근 일부 연예인을 둘러싼 의혹과 논란은 결국 법에 기대 해결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다. 서로 주장이 상반되는 상황과 그로 인한 갈등 탓이다. 얽히고설킨 복잡한 내용이 반박과 재반박을 오가고 있기도 하다. 9일 한 연예관계자는 "쌍방의 주장이 첨예하게 부딪치기 때문인데, 사실 여부를 명확히 규명하는 것이 우선이지 않겠느냐"면서 "최근 상황을 지켜보는 입장에서 많이 안타깝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yuseu.com 기자 tadada@donga.com
yuseu.com 기자 yjh0304@donga.com

연예뉴스 HOT 3

임대설 불거졌던 공명, 12월 14일 입소



공명

배우 공명이 다음 달 현역 입대한다. 소속사 사람엔터테인먼트는 9일 "공명이 12월14일 입대한다"고 밝혔다. 공명은 소속사를 통해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마치고 돌아오겠다"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입대 장소와 시간 등은 비공개한다. 공명은 2013년 웹드라마 '방과후 북북북'으로 데뷔해 영화 '극한직업' 등에 출연해 팬들의 사랑을 받았다. 최근 SBS 드라마 '홍천기', tvN 예능 '바퀴 달린 집'에 출연했다.

BTS, AMA무대서 메건 더 스탠리언과 공연



방탄소년단과 메건 더 스탠리언(오른쪽)

그들 방탄소년단(BTS)이 미국 3대 음악 시상식 중 하나인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AMA)에서 히트곡 '버터'(Butter) 공연을 펼친다. AMA 측은 9일(이하 한국시간) "BTS가 미국의 인기 여성 래퍼 메건 더 스탠리언과 함께 '버터' 실황 공연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상식은 21일 LA 마이클 소프트 시어터에서 열리며 ABC방송을 통해 생중계된다. 미국 피플은 BTS가 메건 더 스탠리언과 협업하는 공연은 처음이라고 밝혔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시상식에서 대상 격인 '올해의 아티스트' 부문 후보에 올랐다.

김준수, 12년 동행 씨제스 떠나 홀로서기



김준수

가수 김준수가 12년간 몸담아온 씨제스 엔터테인먼트를 떠나 홀로서기에 나선다. 최근 1인 기획사를 설립했다. 씨제스 엔터테인먼트는 9일 "김준수 매니지먼트 업무가 종료됐다"고 밝혔다. 김준수는 2009년 그룹 JYJ 멤버로 씨제스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을 맺었다. 그룹 활동 외에도 솔로 가수와 뮤지컬 등 활동을 펼쳤다. 씨제스 측은 "김준수 매니지먼트 업무는 종료됐지만, 앞으로도 협력하고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어느덧 불혹에 접어든 송혜교...열한살 연하와 아찔한 연애

SBS 금토드라마 '지혜중' 서 주연 "내 나이와 맞는 현실적인 이야기" 박효주 "송혜교는 최고의 여자죠"

▶ 1면 '송혜교가 돌아온다'에서 이어집니다

2000년 KBS 2TV '가을동화'부터 '남자친구'까지, 애절한 사랑 이야기는 송혜교를 '멜로 여왕'에 등극시켰다. 통통 튀는 '캔디'의 매력까지 드러냈던 20대 초반의 그녀는 하지만 아직, 사랑을 알지 못했다.

비교적 늦은, 데뷔 이후 8년 만인 2005년 '파랑주의보'로 영화에 데뷔한 까닭을 "사랑의 느낌을 너무 모르는 나이였다. 사랑을 모르면서 사랑을 흉내 내는 연

기를 하고 싶지 않았다"고 말했다.(동아일보 2005년 10월8일자 인터뷰)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으며 많은 경험과 공부를 했다"는 그는 이제 40대 또는 30대 후반의 나이에 어울리는, 그래서 "그때그때 표현하는 방식"이 다를 수밖에 없는 사랑 이야기를 펼치려 한다. 이제야말로 "정말 현실적"으로 "지금 딱 내 나이 또래와 비슷하고, 또래 여성들이 공감할 만한", "동화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현실에서 부딪히는" 이야기의 쾌감을 시청자와 함께 나누려 한다.

앞선 인터뷰에서 송혜교는 "정말 큰 사랑을 통해 사랑의 감정도, 아픔도 알게 됐다"면서 "아픈 사랑이고, 아픈 추억이지만, 또래 연가자들이 쉽게 갖지 못한 감정의 기억을 하나 더 갖게 됐다"고 밝혔다. 30대의 사랑도 아픔을 남긴 채 손놓았지

만, 그것마저 그에게는 연기자로서 지녀야 할 깊은 감성으로 변화했다.

이제 아픈 상처를 털어내고 현실 속으로 뛰어든다. 실제 자신 또래인 38세의 패션회사 디자인팀장 역을 연기하며 사회적 입지를 지닌 전문적 여성의 일과 연애, 직장과 결혼 등에 관한 이야기를 펼친다. "이전과 또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이유"로 택한 이야기는 고교 동창생 박효주·최희서와 "지지고 볶는" 우정도 담아낸다.

30대 후반의 "진득한 '워맨스'(여성들의 우정)"도 또래들의 현실 속에 녹아들 수 있게 서로 "무수히 대화를 나눴다"는 박효주와 최희서는 "여자가 봐도 멋있는 여자"라며 송혜교를 가리켜 엄지를 치켜세웠다. 더욱 성숙해진 송혜교의 얼굴이 보인다.

yuseu.com 기자 yjh0304@donga.com

▶ 배우 장기용과 송혜교(왼쪽부터)가 SBS 새 금토드라마 '지금, 헤어지는 중입니다' 온라인 제작발표회에서 서로 팔짱을 낀 채 다정하게 포즈를 취하고 있다. 제작발표회는 8월23일 장기용의 입대 이전에 사전 녹화에 9일 공개했다. 사진제공 | SBS